



**[해설]**  
최종구가 거절한  
‘혁신위 권고안’  
다시꺼낸 윤석헌  
03

코스피 2294.16 (+8.36)	코스닥 813.19 (+4.91)
금리 (국고채 9년) 2.10 (-0.01)	환율 (원-달러) 1116.00 (+3.80) (10일)

# 개미, 또 당했다... ‘기울어진 증시’ 언제 바로 세우나

##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 〈5(끝)〉 개미는 증시의 봉?

‘저금리 대안’ 개미 증시집결  
外人 짐 싸자 주가 곤두박질  
공매도 제한된 개미만 피해

〈6월 이후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종목 수익률〉 (6월 1일~7월 9일)

종목	순매수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1조4726억원	-1.4%
SK하이닉스	2464억원	-6.2%
KODEX 레버리지	1991억원	-9.4%
현대로템	1827억원	-39.5%
LG전자	1669억원	-16.1%
현대차	1414억원	-10.4%
LG디스플레이	1412억원	-15.1%
OCI	1376억원	-29.0%
삼성물산	1296억원	-5.2%
현대제철	1220억원	-22.0%
평균 수익률		-15.4%

부동산 시장 침체와 2% 초반대의 금리 때문에 주식 투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식시장에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성적은 신통치 않다. 연 초 2600까지 올랐던 코스피지수는 외국인이 집을 싸면서 2200선으로 내려앉았다. 또 다시 주식시장이 ‘개미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유례없는 강세장을 연출했다. 한 해 수익률만 약 27%에 달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는 연내 코스피가

30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주가 상승 분위기를 띄웠다. 연기금에 코스닥차익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 줬고,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펀드도 조성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인 KRX300지수까지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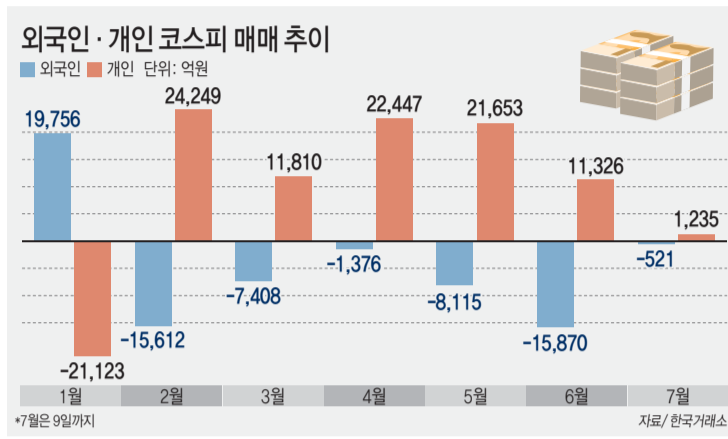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지물이 됐다. 연 초 이후 9일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총 3조9809억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기록했고, 지수는 7.4%나 하락했다.

반면 해당기간 개인은 7조4121억원 규모의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하락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내다 판 주식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 ◆개미는 100전 100패?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본격 조정장세가 시



작된 6월 이후 개인이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5.4%였다. 해당기간 코스피 수익률(-5.7%)보다 세 배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개인이 1조4726억원어치를 끌어다 팔아 순매수 규모 1위인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1.4%다. 해당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조4049억원어치나 팔아치워 주가를 내리눌렀다.

이밖에 SK하이닉스(-6.7%), KODEX레버리지(-9.4%), 현대

로템(-39.5%) 등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대부분 주가 하락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다.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외국인의 투자 성적표는 탄탄이였다.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종목은 고스란히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 LG화학(3710억원), KODEX 200(2546억원), 현대차(2290억 원) 등을 팔아치웠다. 또 순매수

상위종목인 셀트리온(3233억원), 삼성전자(2716억원), LG이노텍(1586억원) 등은 10% 이상 수익을 내면서 조정장세도 이겨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수급은 지수 상승에 후행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매년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개인이 받아먹는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울어진 주식시장

외국인의 풍부한 자본과 정보력이 ‘이기는 게임’을 만드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 제도에서도 외국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공매도가 개인에게는 굉장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미리 매도하는 투자 기법이다.

〈2면에 계속〉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단독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韓-印 교역규모 500억 달러로 확대

(2030년까지)

### 文 대통령-印 총리 정상회담

#### 정부 대 정부, 기업 대 기업 다방면 경제협력 추진키로

한국과 인도가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간 협력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 도착비자 발급 등 비자 간소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교류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남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뉴델리에 있는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정부 대 정부, 기업 대 기업간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모디 총리와 의 회담에선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실질화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적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3P 플

러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대응하면서 상호 교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10년 1월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 진출이 더욱 활발해져서 양국의 상생 번영의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당면한 도전 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도 구축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국내 조선업, 中 제치고 수주 ‘1위’

### 올 상반기 누계 수주량 부문 중국 제치고 3년 만에 탈환 전세계 발주량의 40% 수주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가 중국을 제치고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 1234만CGT(441척) 중 한국이 496만CGT(115척)로 전체의 40%를 수주해 439만(203척), 36%를 수주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상반기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이 2016년 86만CGT 12%, 2017년 321만CGT 28%를 기록하며 중국(2016년 300만CGT 40%, 2017년 393만CGT 35%)에게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올해 들어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6월 한달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138만CGT(63척)로 지난달 139만CGT(54척)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주사와의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계약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주실적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누계실적은 한국이 496만CGT(115척) 40%로 중국 439만CGT(203척) 36%, 일본 148만CGT(58척) 12%에 앞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전세계 수주잔량은 5월말 대비 64만CGT 감소한 7527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만CGT로 나타났다.

지난달과 비교해 중국이 20만CGT, 일본이 60만CGT를 기록하며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은 26만CGT 증가하며 5월 6만CGT 증가에 이어 두 달째 수주잔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주잔량은 중국 2825만CGT(38%)에 이어, 한국 1748만CGT(23%), 일본 1419만CGT(19%) 순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조선시장의 침체로 흑독한 선박 수주 절벽을 겪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상황이 나아졌지만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여름휴가 시즌이 지나 본격적으로 선박 발주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하반기 선주들의 선박 발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 말 발표예정인 미국 웨브론의 해양플랜트 수주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웨브론이 올해 연말 20억 달러

(2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낙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웨브론은 영국 북해 로즈뱅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입찰을 진행중이며 여기에는 국내 조선업계 빅3가 모두 입찰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수주했다가 2016년 시장 환경 악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바 있어 국내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내 조선업계는 더딘 시장 회복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이후 신규 수주가 없는 해양부품 공장을 오는 8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5000여명에 달하는 인력 조정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도 인력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대우조선의 경우 상반기 수주 실적이 나쁘지 않아 당장의 인력 감축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문 기자 ysw@